



# 일본의 중년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일본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 ■ 머리말

일본에서는 1991년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거품경제 붕괴 당시 비정규직 비율은 약 20%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3월 평균 37.7%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청년층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었고, 이제 중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상세집계)’에 의하면 2002년 중년(35~44세)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59만 명으로 청년(25~34세) 비정규직 노동자 수 269만 명보다 약 10만 명 적었으나,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중년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370만 명으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수 297만 명보다 73만 명 더 많았다.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에서는 중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조사 ·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2013년에 시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중년 비정규직의 직장 실태와 문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는 중년(35~44세)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3년 7~8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중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25~34세) 비정규직과 정규직도 조사에 포함하였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조사 대상자 1만 명 중 4,970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아, 유효응답률은 49.7%였다.<sup>1)</sup>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년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기혼 여성은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은 남편의 부양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취업동기 등에서 미혼 여성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고용형태별 남녀 차이를 보면 정규직 비율은 청년의 경우 남성 71.9%, 여성 28.1%, 중년의 경우 남성 83.4%, 여성 16.6%로 남성이 여성보다 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청년보다 중년이 더욱 그렇다.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의 경우 남성이 40.9%, 여성 59.1%이고, 중년의 경우 남성 40.2%, 여성 59.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학력을 보면, 고졸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54.3%로 청년 비정규직의 27.4%보다 약 두 배 많고, 중년 정규직 34.7%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졸의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14.1%로 청년 비정규직 30.3%, 중년 정규직 35.9%보다 매우 낮았다. 즉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이나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학력수준이 낮다.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사무 18.0%(청년 비정규직: 14.4%, 이하 같음), 전문/기술 17.2%(18.8%), 기능/생산 15.6%(14.4%), 서비스(자격 불필요) 15.6%(24.5%), 판매 7.8%(15.4%), 서비스(자격 필요) 5.9%(2.4%) 등이다.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사무, 기능/생산, 서비스(자격 필요)의 직종 비율이 높다.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제조업 22.7%(청년 비정규직: 15.9%, 이하 같음), 의료·복지 14.8%(11.5%), 소매업 10.5%(19.7%), 음식 서비스 7.8%(14.9%), 운송업 5.9%(4.8%) 등이다.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제조업, 의료·복지, 운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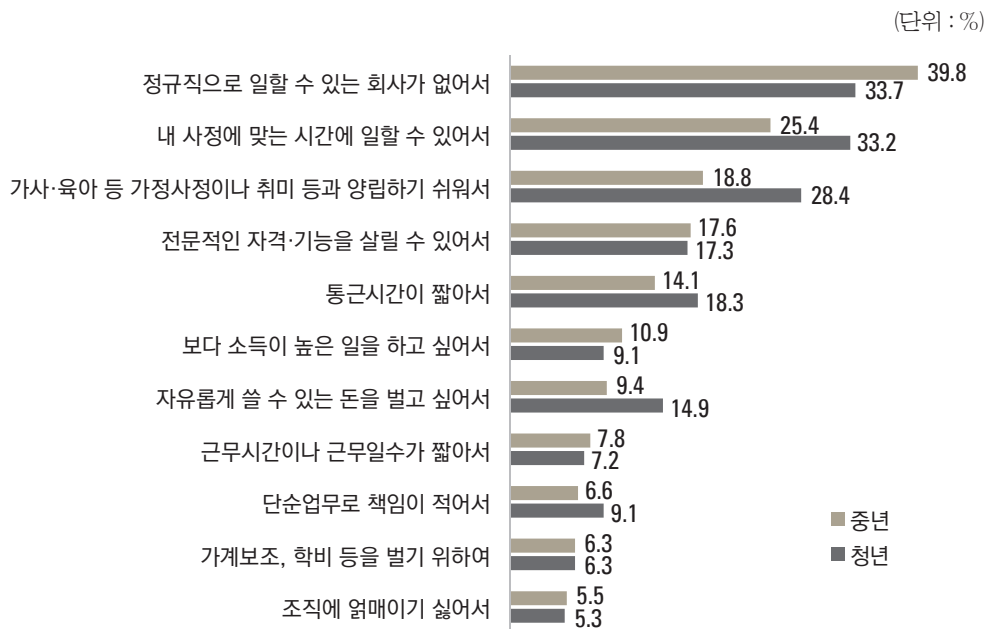
1) 본 조사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현상분석을 중심으로』(<http://www.jil.go.jp/institute/reports/2014/0164.html>).

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상기의 직종 분포에서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보다 서비스(자격 필요)의 비율이 높았는데, 동 비율은 의료·복지, 운송업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형태를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계약직 32.8%(청년 비정규직: 22.1%, 이하 같음)였고, 이어 파트타임 30.1%(32.7%), 아르바이트 14.5%(23.1%), 파견 14.1%(13.0%), 촉탁 4.3%(4.3%) 등이었다. 중년 비정규직의 계약직 비율이 청년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로 39.8%(청년 비정규직: 33.7%, 이하 같음)였고, 이어 '내 사정에 맞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서' 25.4%(33.2%), '가사·육아 등 가정사정이나 취미 등과 양립하기 쉬워서' 18.8%(28.4%), '전문적인 자격·기능을 살릴 수 있어서' 17.6%(17.3%), '통근시간이 짧아서' 14.1%(18.3%), '보다 소득이 높은 일을 하고 싶어서' 10.9%(9.1%),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벌고 싶어서' 9.4%(14.9%),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짧아서'

[그림 1] 비정규직 선택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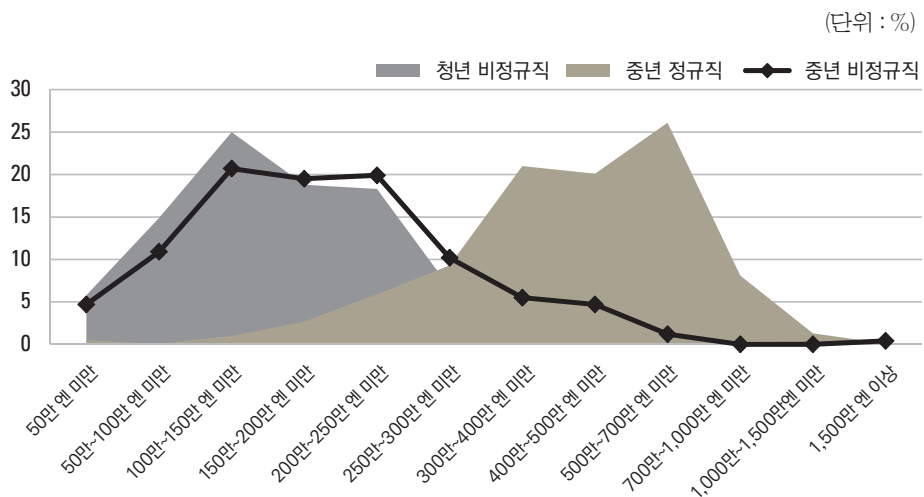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7.8%(7.2%), ‘단순업무로 책임이 적어서’ 6.6%(9.1%), ‘가계보조, 학비 등을 벌기 위하여’ 6.3%(6.3%), 그리고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서’ 5.5%(5.3%)였다.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근소한 차이나 ‘보다 소득이 높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자격·기능을 살릴 수 있어서’ 등의 응답률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더 높았다.

중년 비정규직이 직위가 없는 일을 하는 비율은 91.4%로, 청년 비정규직의 89.9%보다 낮았다. 교육훈련에 관하여 보면, 일상 업무를 하면서 시행되는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56.6%로 청년 비정규직의 68.3%보다 낮고, 직장을 떠나 시행되는 연수 등에서도 중년 비정규직이 21.9%로, 청년 비정규직의 25.0%보다 낮았다. 자기개발을 위한 경제적·금전적 지원을 받은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3.9%로, 청년 비정규직의 2.9%보다 1%포인트 높았다. 전체적으로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보다 교육훈련의 수혜율이 낮았다.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5.1시간으로, 청년 비정규직의 33.7시간보다 길고, 중년 정규직의 39.9시간보다는 짧았다. 평균 시급은 중년 비정규직이 994.1원으로 청년 비정규직의 1,128.7원보다 13.5% 낮았고, 중년 정규직의 1,295.0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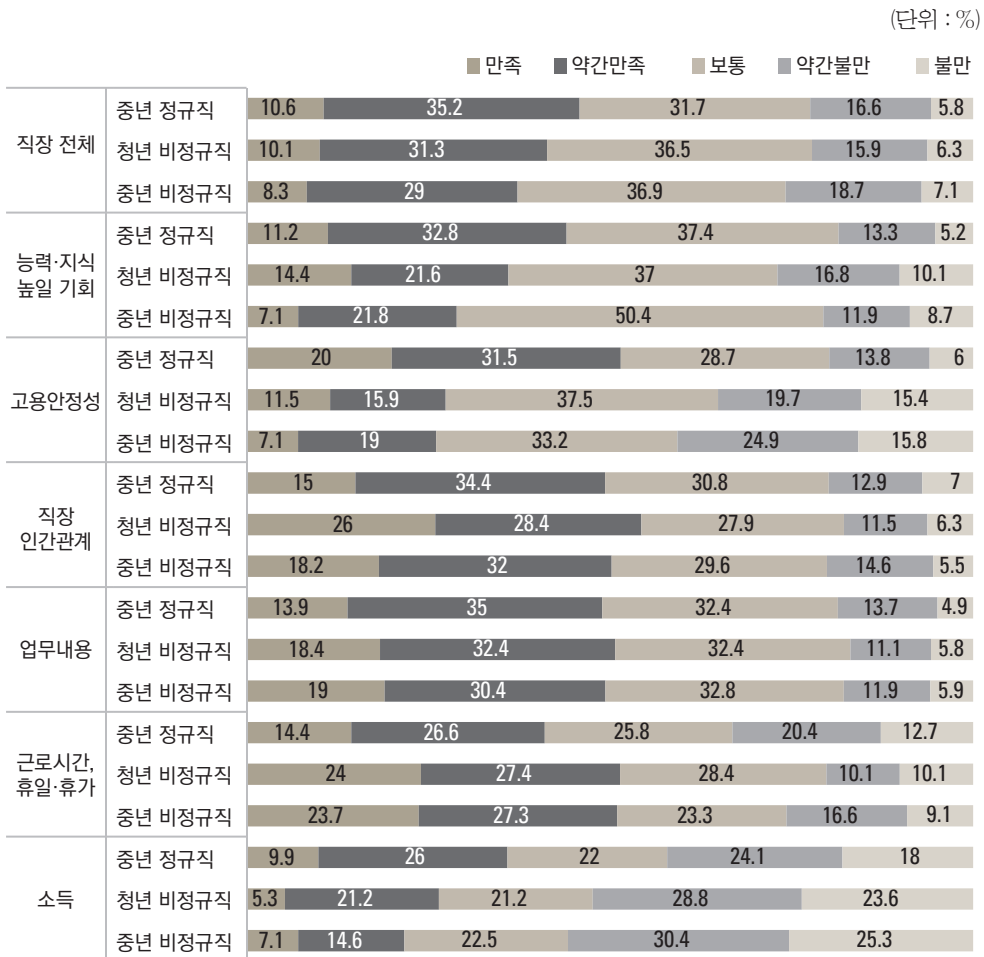
[그림 2] 고용형태별 연소득 분포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 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다 30.3% 낮았다. 한편 월 급여는 중년 비정규직이 20만 3천 엔으로 청년 비정규직의 17만 3천 엔보다 17.3% 높았고, 중년 정규직의 30만 4천 엔의 66.8%의 수준에 그쳤다. 고용형태별 연소득 분포를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100만~250만 엔 구간에 60.1%가 모여있다. 청년 비정규직보다 150만 엔 이하 구간의 비율이 낮고, 200만 엔 이상 구간의 비율이 약간 높다. 그러나 중년 정규직 연소득 분포가 가장 높은 구간이 500만~700만 엔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년 비정규직의 직장생활 관련 만족도를 보면, 직장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8.3%, 약간

[그림 3] 직장생활 만족도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만족 29.0%, 보통 36.9%, 약간 불만 18.7%, 불만 7.1%로, 청년 비정규직보다 만족과 약간 만족이 낮고, 약간 불만과 불만의 비율이 높았다.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더욱 만족이 낮고, 불만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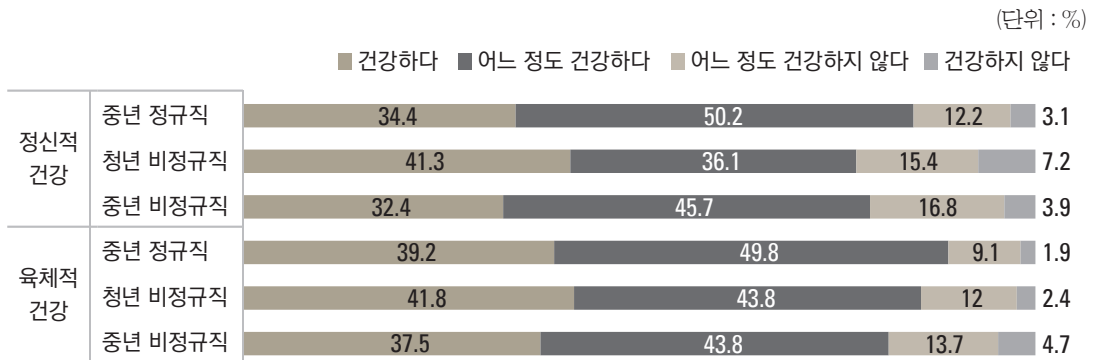
직장 생활의 구체적인 항목별 만족도도 대체로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이나 중년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낮다. 업무능력 향상 기회, 고용 안정성, 직장 인간관계,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휴가, 소득의 모든 항목에서 중년 비정규직의 만족도(만족+약간 만족)가 청년 비정규직보다 낮았고, 노동시간, 휴일·휴가, 업무 내용, 직장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중년 정규직보다 낮았다. 불만도(약간 불만+불만)도 고용안정성, 소득에서는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이나 정년 정규직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중년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 ■ 중년 비정규직의 생활실태와 장래 생활전망

다음으로 생활실태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결혼 여부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년 비정규직이 결혼한 비율은 28.2%로, 중년 정규직의 77.9%의 36.2%에 불과하였다. 청년 비정규직의 경우 18.8%로 청년 정규직 54.1%의 34.8%에 불과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중년 비정규직은 78.8%로 중년 정규직 57.4%보다 높고, 청년 비정규직은 51.8%로 청년 정규직의 34.2%보다 높았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였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 비정규직의 건강상태를 보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 중년 정규직보다 좋지 않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건강하다+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3%인데, 중년 정규직의 89.0%에 비해 낮고, 건강하지 않다(어느 정도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로, 중년 정규직의 11.0%보다 높았다. 정신적 건강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보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나이가 적어 더 건강할 것으로 보이는 청년 비정규직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년 정규직보다 좋지 않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림 4] 고용형태별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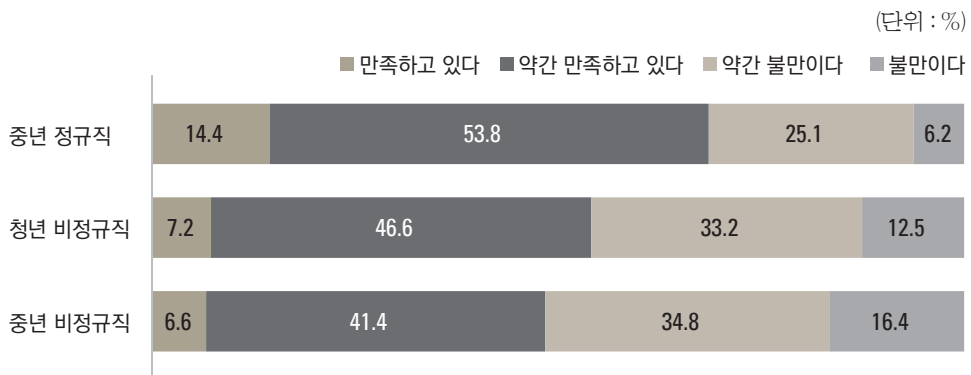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58.2%로 청년 비정규직의 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가계의 상황을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경우, 매우 어렵다 18.0%(청년 비정규직: 12.5%, 이하 같음), 약간 어렵다 53.5%(51.9%), 별로 어렵지 않다 21.1%(26.4%), 어렵지 않다 7.0%(9.1%)로 청년 비정규직보다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또한 중년 정규직(매우 어렵다 9.4%, 약간 어렵다 41.2%)보다 어렵다는 응답도 크게 높았다.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질문, 즉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년 비정규

[그림 5] 고용형태별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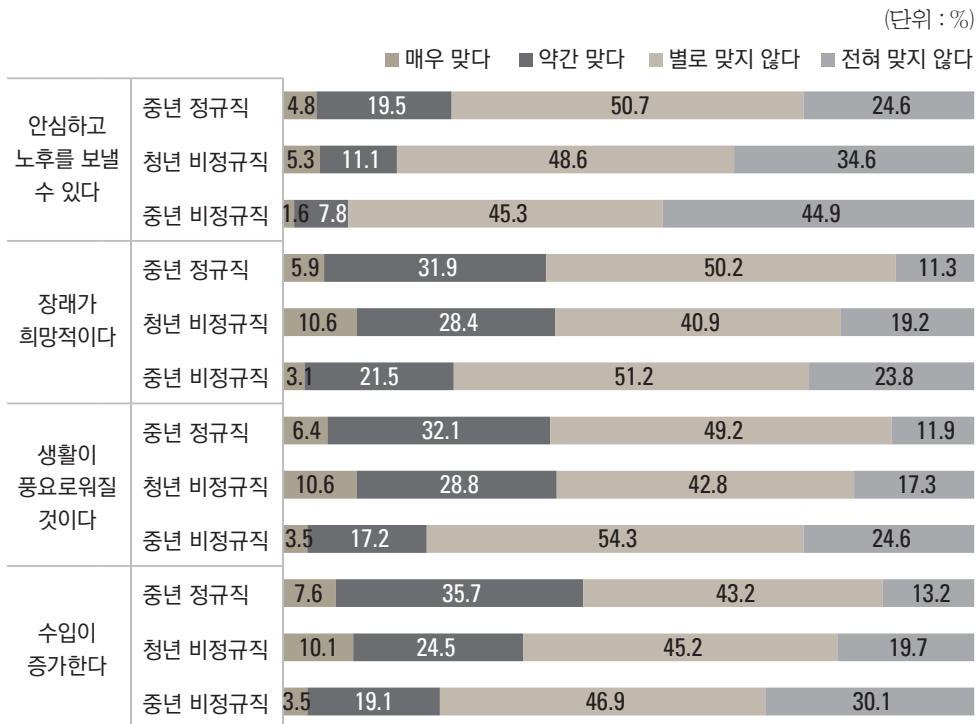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직은 만족하고 있다 6.6%(청년 비정규직: 7.2%, 이하 같음), 약간 만족하고 있다 41.4%(46.6%), 약간 불만이다 34.8%(33.2%), 그리고 불만 16.4%(12.5%)로 청년 비정규직보다 만족이 낮고, 불만이 높았다.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더욱 격차가 컸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가장 낮고,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에 대해 긍정적 전망(매우 맞다+ 약간 맞다)을 한 응답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9.4%로 청년 비정규직 16.4%, 중년 정규직 24.3%보다 낮고, 반대로 부정적 전망(별로 맞지 않다+전혀 맞지 않다)을 한 응답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90.2%로 청년 비정규직 83.2%, 중년 정규직 75.3%에 비해 크게 높다. '장래가 희망적이다',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한다'의 항목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맞다'와

[그림 6] 고용형태별 미래 전망



자료 :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14), 『중년 비정규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관한 연구 : 현상분석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필자 작성.



가장 부정적인 응답인 '전혀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청년 비정규직이나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매우 현저하게 낮거나 높아서, 미래 전망이 매우 암울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

## ■ 중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정규직 전환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33.2%로 청년 비정규직의 39.4%보다 6%포인트 정도 낮았다. 그런데 '정규직이 되고 싶은지'의 응답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59.4%로 청년 비정규직의 58.7%와 거의 비슷했다. 중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크게 맞다+어느 정도 맞다)은 중년 비정규직 65.7%로 청년 비정규직의 75.5%보다 낮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년 비정규직이 21.9%로, 청년 비정규직의 29.3%보다 낮다.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비율과 현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비율 간에는 40% 이상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직업능력에 관한 정보 제공,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시간적, 비용적 지원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 맺음말

일본에서는 1991년 거품경제 붕괴 후 비정규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비정규직은 청년층의 프리터, 니트, 또는 주부 파트타이머로 대표됐으나, 최근 중년(35~44세)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

하여 청년층보다 양적으로 더 많아졌다.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이나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학력 수준이 낮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고 있으나, 의료·복지, 운송업에 관련된 자격으로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년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비율도 대체로 낮았다.

또한 직장생활 만족도도 중년 비정규직은 청년 비정규직이나 중년 정규직과 비교하면 낮았다. 이는 특히 고용 안정성과 소득면에서 두드러졌다.

생활실태를 보면, 중년 비정규직은 결혼 비율이 낮고, 가계상황도 어려운 상태이고, 건강면에서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낮았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가 희망적이다’, ‘내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등 장래의 생활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을 보면, 중년 비정규직의 문제는 청년 비정규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 향상에 시간적, 비용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KLI**